



비즈 포커스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새로운 삼성' 선언

자녀에 경영권 승계 NO! 범법 NO! 무노조 NO!

“법·윤리 엄격히 준수 못해” 사과
재판 끝나도 준법위 독립적 활동
대한민국 국격 맞는 삼성 만들 것

“제 아이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법과 윤리를 엄격히 준수하지 못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부회장은 가장 먼저 논란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그 동안 저와 삼성은 승계 문제로 많은 질책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뇌물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결코 법을 어기는 일은 하지 않겠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 받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뉴스시스

을 일도 하지 않겠다. 오로지 회사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깜짝 선언도 했다. 이 부회장은 이에 대해 “오래 생각해왔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주저했다”며 “경영환경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도 제대로 평가받기 전에 제 이후의 승계를 언급하는 것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노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과했다. 이 부회장은 “에버랜드와 삼성전자 서비스 건으로 많은 임직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동안 노조 문제로 상처 받은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무노조 경영’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부회장은 “준법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며 재판이 끝나더라도 준법감시위원회

는 독립적 위치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목숨 걸고 생명을 지키는 의료진, 공동체를 위해 발 벗고 자원봉사자,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무한한 자긍심을 느꼈다”며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것을 되돌아보고 어깨가 무거워졌다. 대한민국의 국격에 어울리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고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 경영과 관련한 특단 조치를 요구하자, 삼성 계열사들이 협약을 맺고 출범한 독립 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경영권 승계 의혹 등과 관련해 이 부회장이 사과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김병근 기자 dionys@donga.com

남양유업 “대리점과 이익 공유”
공정위, 동의 의결안 최종 승인

대리점과 사전 협의 없이 수수료를 부당하게 깎아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남양유업이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정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29일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된 동의 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9년 11월 전원 회의에서 남양유업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남양유업 제품을 운송·전달하는 255개 대리점의 위탁수수료를 2016년 1월 1일 총본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춘(15%→13%) 사안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안에는 남양유업이 농협 납품위탁 대리점들의 위탁수수료율을 동종업체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고, 해마다 시장조사기관·신용평가기관에 동종업체 농협 위탁수수료를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남양유업 영업이익의 5%를 농협 납품위탁 대리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최초로 도입한 협력 이익 공유제도, 업황이 나빠지더라도 최소 1억 원의 공유 이익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로 대리점 피해 구제, 거래질서 개선, 상생 협력 문화 촉진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지역사회 손잡고 좋은 세상 만들어요”
OB 좋은세상, ‘코로나 극복’ 팔 건었다

대구에 10억 기부…생수 대량 지원
버드와이저 하루 판매액 전액 쾌척
생활고 겪는 청년예술가 응원 앞장
오비맥주도 매출급감 도매업체 지원



국내 대표 맥주 브랜드인 카스 제조기업 오비맥주(대표 배하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 사회공헌 브랜드 ‘OB 좋은세상’을 앞세워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핵심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는 오비맥주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 사회에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대구에 마스크 등 총 10억 원 기부

오비맥주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지역의 안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월 자사의 구매 네트워크를 통해 긴급하게 마련한 마스크, 손세정제 등 개인위생용품과 의료품을 코로나 피해 지역민들에게 지원했다.

오비맥주가 이번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해 지원할 긴급구호품과 기부금은 총 10억 원에 이른다. 특히 마스크, 손세정제 등의 위생용품은 일선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

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 방역요원 등에 우선 전달했다.

●코로나19 격리 생활 대비 생수 지원

오비맥주는 2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단법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에 생수를 지원했다. 오비맥주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격리 생활 등에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생수 8970병(2L 기준)을 희망브리지에 전달했다. 해당 물품은 우선 희망브리지 파주재해구호물류센터에 보관 후 필요 시 긴급 지원되었다.

●국내 의료진 및 소외계층 돕기에도 나서

오비맥주가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맥주 브랜드 버드와이저는 WHO(세계보건기구) 발족일인 ‘세계 보건의 날(4월 7일)’을 맞아 7일 하루 동안 판매된 전 세계 각 국가의 버드와이저의 수익금을 의료진들을 위해 기부했다. 한국의 경우, 버드와이저는 하루 판매 수익금 전액을 사랑의 열매 ‘코로나19 특별모금’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사랑의 열매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힘쓰는 국내 의료진과 봉사자 및 소외계층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브랜드는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영상 ‘하나의 팀(#ONETEAM)’을 제작해 브랜드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버드와이저가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제작한 영상 ‘하나의 팀(#ONETEAM)’. 사진제공 | 오비맥주

●버드와이저 ‘스테이 스트롱 기부 캠페인’

버드와이저는 3월 30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젊은 예술가들을 응원하는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다. 창작집단 ‘스튜디오 콘크리트’와 협업을 통해 한정판 티셔츠를 제작하고 카카오프렌즈를 통해 판매했다. 버드와이저는 스테이 스트롱 티셔츠 ‘선물하기’를 통해 모은 판매금 전액과 추가로 동일한 모금액을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모은 뒤 서울문화재단에 기부해 ‘코로나19 관련 예술인 문화활동 지원’ 계획으로 청년 예술가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오비맥주는 국내 대표 맥주 브랜드인 카스 제조기업으로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 급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국 주류도매사를 돕기 위해 주류구매대금 상환 기일 연장 등 대규모 지원책도 시행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분야를 넘나드는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 구성원의 안전 우선 원칙에 따라 이번 사태를 조속히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에듀윌

임직원 위한 마사지기 도입

10·20대 위협하는 척추측만증
허리근육 스트레칭·마사지 도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척추질환자

수가 80대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수능공부와 취업준비 등으로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10·20대의 활동량이 적어짐에 따라 척추 기능도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척추의 악화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척추질환은 척추측만증이 있다.

정면에서 척추를 봤을 때 굽은 일자모양이 아닌, C 혹은 S형대로 휘어진 상태를 뜻하는 척추측만증은 다리를 꼬고 앉거나 무거운 가방을 한쪽으로 메는 등 잘못된 생활 습관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척추측만증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휘어진척추가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 조기에 교정 등 치료를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더욱 효과적인 것은 꾸준한 운동으로 척추기립근 등 근육을 강화해 예방하는 것이다. 허리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등을 통해 예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직원들의 척추건강을 지키고 업무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세라젼 마사지기’(사진)를 도입했다. 척추 스캐닝을 통해 각자 다른 체형에 맞게 마사지를 제공하는 ‘세라젼 마스터 V3’ 마사지는 임직원의 피로 해소와 업무 효율에도 도움을 준다.

에듀윌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마트하게 쉬고, 일할 수 있는 사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동아전람, 9개 대형 박람회 동시에 연다

〈MBC건축박람회 등〉

건축·리빙·조경·선물·레저 망라
8일부터 11일까지 일산 킨텍스

박람회 전문기업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제53회 MBC건축박람회’, ‘제25회

동아 홈&리빙페어’, ‘2020 동아 공공시설 및 조경박람회’, ‘2020 서울 조경박람회’, ‘2020 서울 디지털프린팅·사인 엑스포’, ‘제14회 동아 가구엑스포’, ‘제19회 동아 기프트쇼’, ‘제17회 동아 차·공예 박람회’, ‘제15회 동아 스포츠·레

저산업 박람회’가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KINTEX(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건축자재, 인테리어, 조경, 조명, 디지털프린팅·사인, 홈&리빙, 가구, 판촉 및 선물용품, 차·공예품, 스포츠·레저용품 등으로 이루어지며, 관련제품의 최신정보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게 된다.

전시장 방문 시 필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최근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발열 또는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전시장 방문을 제한한다. 박람회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동아전람 홈페이지에 사전등록을 하면 무료관람 초청장을 보내준다. 문의 : 동아전람 02)780-0366, www.dong-a-fairs.co.kr 원성열 기자